

코로나로 음식·숙박업 타격...신용카드 사용 '뚝'

광주·전남 지난해 8181억 감소 중 3627억 '최대'...연료 3031억 ↓ 온라인 소비는 67% 증가...백화점보다 동네슈퍼·편의점 이용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해 광주·전남 신용카드 결제액이 전년대비 8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가 자리잡으면서 지역민들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결제액은 500억원을 넘겼다.

17일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형태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9조5142억원·전남 8조3180억원 등 17조832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181억원(-4.4%) 감소한 금액이다.

광주·전남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7099억원(-6.9%)이나 줄어 들었고, 전남은 1082억원(-1.3%)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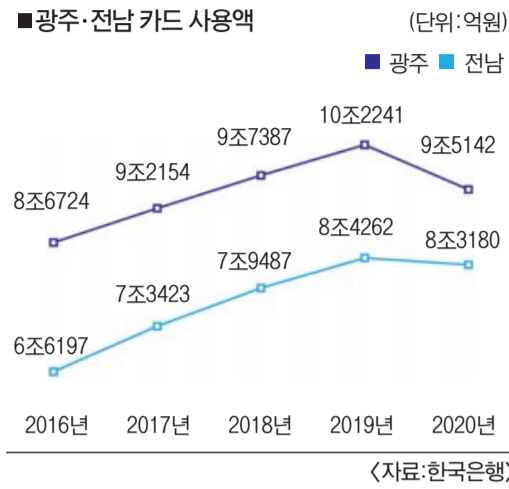
지난 2019년은 광주 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고, 전남은 8조원을 웃돈 해였지만 이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광주 카드 사용액은 지난 2016년 8조6724억원 이후 9조2154억원(2017년)→9조7387억원(2018년)→10조2241억원(2019년)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꺾였다.

전남은 지난 2015년 6조3907억원 이후 6조6197억원(2016년)→7조3423억원(2017년)→7조9487억원(2018년)→8조4262억원(2019년) 등 4년째 오르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 보면 대면이 필수적인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고, '집콕' 경향으로 식품과 가구·가전 등은 특수를 맞았다. 두 지역 모두 숙박·음식업 타격이 가장 컸다.

지난해 숙박·음식업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광주 2718억원·전남 909억원 등 3627억원이 감소했다. 연료 감소액이 3031억원(광주 1435억원·전남 159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류·잡화 1277억원(광주 792억·전남 485억) ▲오락·문화 733억



(광주 593억·전남 140억) ▲교육 706억원(광주 595억·전남 111억)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종합소매 사용액은 광주가 1062억원 급감했지만 전남은 746억원이 증가하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두 지역 시·도민들은 백화점 사용액을 광주 809억원·전남 159억원 등 968억원이나 줄었지만 슈퍼

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각각 835억원, 372억원 씩씩이 늘었다. 대형마트·유통전문점 사용액은 광주가 671억원 줄고, 전남은 132억원 증가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중단 여파로 전남 면세점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했다.

이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여행·교통(-102억원), 의료·보건(-24억원), 자동차(-20억원) 업종에서 소비를 줄였다.

반면 식품(597억원)과 가구·가전(594억원), 공과금·개인 및 전문 서비스(412억원), 금융·보험(29억원) 업종에서는 지역민들이 지갑을 열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온라인 소비는 전년 대비 1.7배(67.3%) 수준으로 늘어나며 5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지역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결제액은 광주 288억원·전남 278억원 등 567억원으로, 전년(339억원)보다 67.3%(228억원) 증가했다.

한은 '지역별·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가맹점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하며, 해외사용분, 현금서비스, 법인 이용금액은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47.50 (-19.67)
↑ 코스닥	943.78 (+3.13)
금리 (국고채 3년)	1.177 (-)
↑ 환율 (USD)	1130.20 (+0.50)

기아 광주공장 이틀째 멈춰 협력업체 노사 갈등 여파 250개 업체도 차질 우려

㈜호원의 노사 갈등으로 기아 광주공장이 이틀째 가동 중단됐다.

17일 기아 광주오토랜드(광주공장)에 따르면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 호원 측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전달 오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은 부품을 공장에 보관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대형버스와 군용트럭 라인을 제외한 셀토스와 스포티지, 쏘울, 봉고트럭 등 1·2·3공장 생산라인이 멈춰선 상태다.

광주공장의 하루 차량 생산량은 2000여대로, 공장가동 중단에 따라 50여개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업체 등 총 250여 업체 역시 조업 차질을 빚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호원 조합원들은 전달 오전 6시부터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공장 가동과 제품 반출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부당하고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복수 노조를 설립하는 데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위신 회복 위해” 양진석 회장 후보 사퇴

오늘 임시의원총회...정창선 현 회장 연임 될 듯

광주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양진석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양 회장의 후보 사퇴로 정창선 현 회장(중흥그룹 회장)이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석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불신과 혼탁 선거로 타락한 광주상의의 대외적 위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급변하는 정치·경제 속에서 광주상

의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광주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상의는 상공인의 소통의 장과 애로사항 해결의 장소이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다”며 “실질적인 상의의 역할 부재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동안 회장 선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 모두 화합·참여하는 광주상의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의 조언을 새겨 회원들이 원하는 상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상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별회비 납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회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

권 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지만 함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사퇴의 변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양 회장의 사퇴에 따라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정창선 현 회장의 단독 후보 출마로 치러진다.

광주상의 규정에 따라 18일 박홍석 광주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일반·특별회원 92명에게 정 후보에 대한 회장 추대 여부를 묻는다. 의원 중 1명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 표결에 들어가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정 후보가 연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7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

2월 2만8000명 줄어...20대·여성 고용난 심각

코로나19 고용절벽에 광주·전남 2월 취업자가 3만명 가까이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가 6만명 넘게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충격’이 덮였던 1월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광주 73만9000명·전남 95만1000명 등 16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었다.

전년보다 취업자 수가 광주는 1만1000명, 전남은 1만7000명 감소했다. 광주·전남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은 20대와 여성의 고용난이 심각했다. 지역 20대 취업자 수는 광주 3000명·전남 1만

5000명 등 1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9월(-1만3000명), 10월(-2만3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1000명), 올해 1월(-2만2000명)에 걸쳐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 20대 취업자가 1만8000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30대(-9000명), 50대(-9000명), 40대(-7000명), 15-19세(-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영향으로 광주 2000명·전남 1만9000명 등 2만1000명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만4000명 줄어들며, 남성 감소 폭(-5000명)을 5배 가까이 웃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섬유역 물환경 개선방안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17일 '영·섬환경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세계 물의 날(22일)을 앞두고 영·섬유역 물 환경 개선방안과 주민 참여형 정책 사업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종이 없는 민원창구 운영

국민연금 광주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종이 없는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종합민원실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터치스크린)’를 설치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창구 적용 업무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취득·상실 신고, 반·추납 신청, 노령·유족·장애연금 청구 등이다. 증명서 발급 등 21종의 신청서도 작성할 수 있다.

광주본부는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건당 4분씩 단축하며 연간 181만건에 달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당 334원 정도를 쓴다고 가정하면 연 평균 2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균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